

크스님 수행한담

나눌 줄 알아야 보살



◇97년 8월 3·4교구 본말사주지 여름 수련법회 사진. 네번째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태허스님이고 앞줄 왼쪽부터 월정사주지 현해스님, 신흥사주지 도후스님.

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열불은 그저 불보살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고 되뇌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교 수행의 요건이라 할 수 있는 <능엄경>을 보면 열불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대제지보살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대제지보살은 열불하는 중생을 극락 정토에 태어나도록 큰 용맹심을 일으켜 주는 보살이지요. "부처님을 기억하고 부처님을 염한다면 현생이나 내생에 틀림없이 부처님을 볼 것이며,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 하여 어려운 방편을 빌리지 않아도 스스로 참 마음이 열리니, 향수를 바른 사람의 몸에 향기가 있는 것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시오. 이 말은 열불 수행의 특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잘 나타낸 구절이라 할 수

살님께 의지하고 열불해 많은 공덕을 입었습니다. 부여 무량사·공주 감사·원주 구룡사에서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많은 불사를 해왔지요. 그런데 불사 때마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랐는데 그때마다 지장보살님께 매달렸더니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불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원주 구룡사에 있을 때 한 살먹은 보살이 한 명 찾아와 사는 게 고통스러운데 여덟하면 좋겠느냐고 하소연을 해왔습니 다. 이유인 즉, 남편이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면 가구를 마구 부수고 심지어는 그것을 말리는 자신과 아들한테도 손찌검을 서슴치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삶의 고통 받아들이기 따라 보살행의 동력이 되기도하고 분노와 진심 일으키기도 해요”

집안에 들어오면 항상 들리는 열불 소리로 인해 남편 행태에 변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열불 기도를 시작한지 5년째 남편이 밤에 들어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보살에게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술을 먹을 때마다 부인의 열불 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쳐 괴로웠다는 말을 했대요. 열불의 공덕으로 가정의 행복을 되찾은 가파를 입은 셈이지요. 산에 올라갈 때는 하나의 길을 택해 올라가지만, 산 정상에서 보면 모든 길이나 다 보이고 다 통해 있음을 알 듯 10만 부처님이 한 부처님이요, 한 부처님이 10만 부처님입니다. 열불하는 사람은 우선 하나의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를 고집하지는 않음으로 한 부처님에 한 부처님이요, 한 부처님이 10만 부처님입니다. 열불하는 사람은 우선 하나의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를 고집하지는 않음으로 한 부처님에 한 부처님이요, 한 부처님이 10만 부처님입니다. 열불하는 사람은 우선 하나의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를 고집하지는 않음으로 한 부처님에 한 부처님이요, 한 부처님이 10만 부처님입니다.

일체처 일체시(一切處 一切時)에 어떤 사람이 지장보살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밥을 먹어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지장보살이 먹는 것이고 잠을 자도 내가 자는 것이 아니라 '지장 보살'이 자는 것입니다. 불보살의 모습은 눈이나 귀를 통해 볼 수 있는 감각적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마음 안에서 드러나는 깨달음의 큰 지혜 광명이며 자비이지요. 그래서 참되게 열불하는 사람은 잘못도 요행스런 기적이나 신통 등 외형적 기괴를 구하지 않습니다. 돈 생각이나 복을 받으려는 생각보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실하고 간절하다면 부처님은 불자를 앞에 분명히 나타낼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 열심히 열불하십시오. 부처님 말씀대로 따르면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열불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결국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내 아픔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이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 준다고 할 때 상대가 느끼는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며 상대의 편에서 서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경우 자기 생각에 맞춰 행동하기 쉽습니다. 즉 중생은 자기 중심에 집착해 자기 생각대로 상대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자신에게 단순한 구제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기도 하지요. 만약 이와 같은 형태로 구제를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지배 형태를 가져 오는데에 불과합니다. 그런 안됩니다. 아픔은 훨씬 더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배우는 행위는 아픔을 함께 느끼는 사랑에 비하면 좁은 사랑의 표현에 불과 합니다. 아픔을 기반으로 한 사랑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아픔을 겪거나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아픔을 마치 자기가 겪은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중요 하지요.

“상대를 불쌍히 여겨 돕는것은 좁은 사랑 남의 아픔이 내아픔일때 진정한 자비”

있습니다. 부처님을 만나는 것, 이는 우리 모든 불자들이 신명을 바쳐 추구해야 할 과제이며 성취해야 할 목표입니다. 나는 많은 경전에서 <지장본원경> 독경과 지장보살 열불을 60여년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지장본원경>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성불을 이루고 계신다는 지장보살의 공덕을 찬탄한 경전입니다. 또 지장보살은 도리천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촉을 받고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신다는 본입입니다. "이 수많은 세계를 다 살피도 지장 보살이 깨달음에 이르러 구제한 중생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누구든 지장 보살의 모습이나 거룩한 그 이름 한 번만 불려도 캄캄한 지옥을 벗어날 수 있다"고 <지장본원경>에도 나와 있듯이 나는 지장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을 위해 그러저럭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참겠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 이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참피해서 남들에게 얘 기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나를 찾아 왔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부터 절에도 찾아 오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가족들 보는 앞에서 지장보살 열불을 열심히 하라고요. 그 보살은 108일, 324일 자신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죽기 살기로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정진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행동을 하는 그 보살에게 남편은 귀신이 썩었다고 열불하지 못하게 열주를 잡어 던지기 까지 했지요. 하지만 그 보살은 개의치 않고 열불 정진을 묵묵히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부터인가

의지처이시고 무조건의 대자대비인 것을 굳게 믿으며 이를 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불 수행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을 믿고 열심히 열하면 마음에서 일체 형상을 취하지 않고 큰 원을 세우고서 정진하게 됩니다. 정진해 나감에 따라 그동안 자신에게 쌓였던 모든 업장과 미혹들이 차례로 사라져 망념에서 벗어나게 될 때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공덕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망념된 업의 흐름을 차단하는 길은 원력이 깊은 불보살의 명호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생각하고 사라지는 온갖 마음들은 하나의 불보살의 이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불보살의 이름 하나로 모든 마음을 꼭 채우면 번뇌가 일지 못하게 하고 일체의 사랑분별이 끊어지게 됩니다.

나의 수행일기



오영희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

'행과 지혜를 갖춘은 수레의 두바퀴 같음'이요,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보살행은 새의 두날개와 같음'일세.(行智具備 如車二輪, 自利利他 如鳥兩翼)
<발심수행장>에서 원효스님이 설한 이 말씀을 나는 항상 마음속에서 되새긴다. 어떻게 하면 행과 지혜를 다 갖출 수 있을가를 고민했던 나는 항상 스님들의 법문을 쫓아 다녔다. 교직에 몸담았던 시절 매주 목요일 학교수업이 끝나자마자 버스를 타고 종로 대각사로 달려가 광덕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불심을 키웠고, 강남포교원 불자여교사모임 호법회에서 활동하며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테두리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려고 애썼다.

일예 불자들의 동참과 관심을 홍보하면서 부처님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수 없었다. 정말 학교를 잘 그만뒀다는 생각을 했다. 동산불교대학 졸업과 함께 포교사자격까지 취득한 그때야 행과 지혜를 구족한 불자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디딘 것이다. 작년에는 회갑을 맞아 무언가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길을 찾다가 뜻밖에는 불자들이 아마타춤 무용단을 결성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무용단을 꾸리려고 한것도 아닌데 아마타춤을 배운다는 소식을 듣고 20대에서 70대까지의 불자들이 모여들었다. 무용가 한 순옥 선생님을 초빙해 30여명의 회원들과 경전에 근거한 보살춤을 배워 8월 강원도 건봉사에서 열린 전국열불만일회에서 아마타춤을 선보였다. 전문 무용인은 아니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용으로 표현하려는 회원들의

불법 배우고 실천하려 교직명퇴 '불교연합무용단 만들자' 원 세워

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을 통해 조금씩 살찌우기 위해 노력했다. 2년이란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불교대학을 다니며 공부할 때마다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않았다. 하지만 어렵잖아 게만 알고 있던 불교역사와 교리에 대해 차츰 눈을 뜨기 시작했다. 학교생활보다 더 신나고 즐거웠다. 하지만 함께 입학했던 동료 선생님들은 대부분 중도에 하차하고, 나 혼자 졸업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성공적으로 공연됐다. 이후 몇몇 사찰에서도 선을 보이며 요즘도 아마타춤 무용단을 꾸려나가고 있다. 올해 나는 불교포교를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불교문화포교차원에서 불교연합무용단을 만드는 것이다. 사찰마다 2명이든 3명이든 뜻있는 불자들이 모여서 경전에 바탕을 둔 춤을 공부하고, 사찰에서 행사가 있을때마다 공연하는 것이다. 색다른 분야를 개발해 보다 많은 이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포교사로서의 내 사명이라 믿기 때문이다. 불자들에게 무조건 봉사를 위주로 한 신생활을 강요하기보다는 신생활을 통해 스스로가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문화포교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고려대장경 후원사업은 물론이고, 동산포교사단과 함께 하는 파주 지역 군포교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내가 속해있는 곳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불교를 전하기 위해 정진할 것이다.



여시아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여시아문은 '좋은 바, 흰 차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였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주소: 종로구 경자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참선요지(參禪要旨)

선(禪)은 가장 궁극적인 일이며, 모든 부처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이다. 이 일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길이 소멸해 버린 자리(言語道斷 心行處滅)이며, 생각으로는 미칠 바가 아니다.

그러나...

허운(虛雲)화상 법어. 대신(大星)스님 옮김. 66면형 278쪽 / 25,500원 / 여시아문 펴냄

주머니속 대장경 801-선(禪)

허운(虛雲)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초심자는 공부를 해도 향상되지 않고, 구참자는 중간에 머물러 게을러지게 되니 선수행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스님의 일생은 진정한 수행자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귀중한 모범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깨달음의 법(法)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통째로 던지는 하나의 거대한 실천을 응변하는 것이다. 우리가 빠지지 쉬운 안일과 내태, 그리고 온갖 아집과 자기 합리화에 대한 통렬한 질타이기도 하다. 결국 스님의 가르침은 스님 자신의 이러한 치열한 수행의 체험이 그대로 결정되던, 오묘한 말씀들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윤기인의 말 중에서),

서문

제1부 참선요지	제2장 선방 법문	제3장 참선경어	부록
제1장 참선의 선결 조건	1. 이끄는 말	제4장 제석보다시증 (除苦菩提示衆)	1. 허운 화상 약전(略傳)
1. 참선의 선결 조건	2. 공부의 입문 방법	제5장 수행과 불수행	2. 어휘 해설
2. 성불(成佛)의 방편	3. 공부의 두 가지 어려움과 쉬움		3. 인명 해설
3. 화두 참선법	4. 결론		
4. 공부의 어려움과 쉬움		제2부 선철법문	